

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슈퍼워크 살펴보기

✓ BOJ 통화정책회의(3/18~19): 매파보다는 정상화로 한 걸음

1) 마이너스 금리, 2) 수익률 곡선 제어(YCC) 정책, 3) ETF 매입 중단 결정. 단, 일본 국채(JGB) 매입은 기존 규모(월 6조엔)를 유지하며 금리 급등시 매입 규모 확대

▶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작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정책들을 종료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해석

▶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계속된 양적/질적 완화정책,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주주 환원과 임금 인상, 나아가 대내 소비와 투자 촉진이라는 선순환(디플레이션 탈출)을 위해 노력. 추가 정책을 서두르기보단 **춘투(일본의 노사협상, 1차 요구안은 5.28% 인상) 이후 '임금 인상-소비 촉진-인플레이션'이 이어질지 확인하며 추가 금리 인상 전망**

✓ 3월 FOMC(3/20~21): 예상보다 비둘기파였던 파월. 점도표 상에서 2024년 중 75bp 인하 예고

연초 물가 지표 반등으로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상 횟수 변화를 우려

▶ 기준금리는 5.25~5.50%로 동결.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모두 상향했으나, 점도표 상의 중간값은 2024년 4.6%(12월과 동일), 2025년 3.9%, 2026년 3.1%로 제시. 오는 **6월 또는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**으로 해석(2025, 2026년 중간값 상향)

✓ 슈퍼워크를 지난 연화의 행방은?

BOJ의 정상화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결국 미-일 간의 금리 차는 천천히 축소되며 **엔화는 점차 강세로 전환될 것**. 다만 BOJ가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 변동성을 제어하고, 주요국 중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(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는 한)에서 **엔화 단기 급등 가능성 제한**

✓ 시나리오별 ETF 투자 전략

1) 엔화 강세 전환 & 미국 기준금리 인상 : 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(합성 H)

2) 상대적인 고금리 향유와 달러화 강세(달러화 외 통화 약세) 유지

: KBSTA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(합성), KBSTAR KP달러채권액티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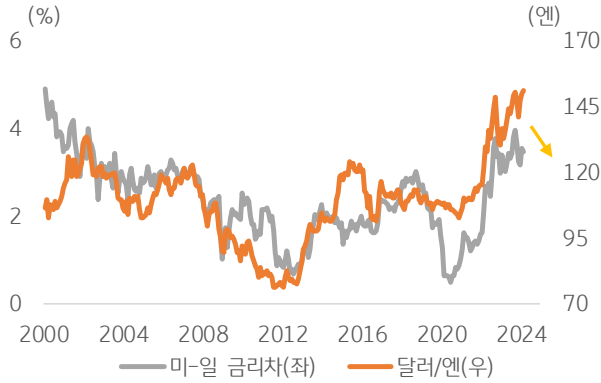
3) 달러화 약세 전환(달러화 외 통화 강세): KBSTAR 미국달러선물인버스

관련 KBSTAR ETF ▶

상품명	총보수(연)	투자포인트
KBSTA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(합성)	0.05%	SOFR(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) 금리를 일별 추종하는 동시에 환 노출형으로 달러화에 투자하는 효과
KBSTAR KP달러채권액티브	0.09%	KP(Korean Paper,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)에 투자해 고금리 채권과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 추구
KBSTAR 미국달러선물인버스	0.05%	달러화에 대한 역방향성 투자로 달러 약세(원화 강세) 구간에서 달러 보유에 따른 위험 헤지 가능
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(합성 H)	0.15%	미국 30년 국채와 일본 엔화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ETF(2621 JP에 투자하는 효과)로 연금계좌 편입을 통한 절세 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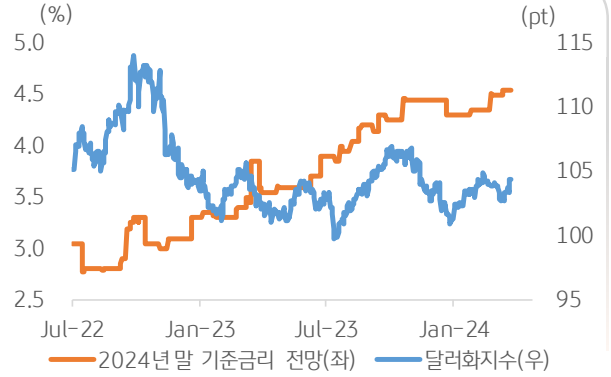
※ 출처: KB자산운용, 2024.3.25 기준

미-일 금리차가 줄어들며 연화 강세 전환



※ 출처: Bloomberg, KB자산운용

2024년 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와 달러화



※ 출처: Bloomberg, KB자산운용

※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‘투자광고 2024_340(다)’

※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,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